

# 해외의약뉴스

## 어린 시절 자주 이사하면 자살위험 증가

### 개요

영국 맨체스터대학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린 시절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이 향후 자살과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위험은 이사 횟수에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적 수준이 높고 낮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키워드

청소년기, 이사, 자살, 정신건강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쌓여온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는 즐거운 시간이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이사를 다니는 것이 향후 성인기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 Webb박사팀은 이러한 심각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미국 예방의학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에 게재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기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1971년부터 1997년에 태어난 덴마크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 추적조사를 수행했다. 데이터 셋(dataset)에는 태어날 때부터 14살까지의 모든 거주지 이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연구진이 젊은 시절과 청소년기를 비교하기 위해 모든 거주지 이동은 어린이의 연령별로 연관되었다.

Webb박사는 “덴마크는 독특하게 모든 인구의 거주지 변화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레지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주거 이동성과 이후 생활에 부작용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개개인의 포괄적인 국가 레지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자살시도, 폭력적인 행동, 정신 질환, 약물 오용, 정상 및 비정상적인 사망을 포함하여 향후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어린 시절 이사로 인한 부작용 위험을 그룹화했다.

- 자살시도와 폭력범죄를 포함한 자기 주도적, 대인폭력
- 정신의학적 진단을 포함한 정신질환과 약물 오용
- 정상 및 비정상적 사망을 포함한 조기사망(early mortality)

연구 참여자 중 37%가 15세 이전에 최소 한 번 이상 이사를 했으며, 유아기동안 가장 빈번하게 거주지 이동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초기 청소년기(12세~14세)동안 자주 이사를 한 사람들이 중년기에 자살과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를 한 번 더 할 때마다 이와 같은 위험은 비례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면, 어떤 나이에서든 여러 번 이사를 할수록 한 번 이사를 했을 때 보다 향후 자살과 사망 위험은 비례적으로 더 높아졌고,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매년 이사를 자주 다닐수록 자살 시도 위험은 증가했다.

CDC에 따르면 자살은 청소년기 사망 원인 3위로, 매년 약 4,600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러한 인구의 장기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경각심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족의 경제적 상태 (socioeconomic status, SES)를 조사하였다.

부모 모두 세 가지 영역(소득, 학력수준, 고용상태)중 적어도 하나 이상 점수가 낮을 경우 낮은 분류에 속하는 반면 모두 점수가 높을 경우에는 높은 분류에 속하게 된다. 또한 다른 모든 조합의 경우에는 중간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webb박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높고 낮음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 시절 자주 이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향후 다양한 장기적인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보건사회서비스, 학교, 그리고 다른 공공 기관은 경제적 수준이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청소년기 심리적 요구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310801.php>